

폭염 절정... 줄이는 온열환자

5월이후 전국 680명 발생... 광주·전남 121명 '최다'

오후 2시~6시, 50~80대 취약... 119 폭염구급대 운영

지난 3일 오후 2시50분께 고모(여·32)씨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돼 열사병 증세를 보였던 고씨는 당시 체온이 39.4도에 달했다.

광주·전남 지역에 불볕 더위가 지속하면서 열사병·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지난 5월이

후 121명(광주 36명·전남 85명)으로, 열탈진(80명)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31명)·열경련(5명)·열실신(5명) 등 순이었다.

전남지역 온열 질환자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680명·사망 7명) 중 가장 많았다. 전남 이외 ▲경북(57명·사망 1명) ▲충북(45명·사망 1명) ▲전북(44명·사망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달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 22명의 온열환자의 경우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가 63.6%(14건)로 가장 많았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30일에는 광주에서만 4명의 온열질환자가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들은 50~80대 중·장년층으로 발이나 주택에서 고열·탈진·경련 증세를 호소했다.

소방 당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119구급차 118대(광주 28대·전남 90대)를 동원해 9월 말까지 폭염구급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폭염구급대 구급차량은 열음조끼,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등 장비를 갖추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이른바 '뽀뽀'로 불리는 펌프차 126대를 운행한다.

임근술 광주시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인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를 기록했으며, 화순 36.5도, 구례 36도, 광양 35.5도, 나주 35.1도, 곡성 34.3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광주와 나주, 구례·광양의 경우 오는 9일까지 폭염특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생떼' 민원인 안보준다

광산구, 비상벨·CCTV 설치

폭력·욕설하면 경찰에 인계

"생떼를 쓰거나 욕설하는 등 악성 민원을 하면 큰 코 다칩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협박을 일삼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악성 민원은 특히 민원 업무가 많은 복지, 교통, 건축과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광산구 설명이다.

광산구는 청사 1층 현관에 안내 데스크를 마련해 민원 업무를 전달시키고 청원경찰을 배치해 악성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구상이다.

악성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부서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청원경찰, 관련 부서와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CCTV를 설치, 악성 민원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 자료로도 제출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가득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합, 건축 등 담당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생떼를 쓰며 욕설을 퍼붓는 민원인 탓에 지치고, 때로는 신변 위협까지 느낀다"며 "경찰과도 협조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어르신 건강 하세요"

5일 '우더위 쉼터'로 지정된 광주시 북구 양산경로당을 방문한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과 두암보건지소 직원들이 시설 안전점검을 한 뒤 어르신들을 상대로 혈당·혈압 등 건강 점검과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다.

최희준기자 choi@kwangju.co.kr

'스쿨존' 잦은 교통사고, 이유는 안전시설 부실

국민안전처 광주·전남 5곳 조사 시설개선 92건 지적

교통 사고가 많이 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한 곳당 평균 18건이 넘는 문제점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지정된 '광주·전남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곳'을 점검한 결과, 92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1곳당 평균 18.4건 꼴로,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평균 10.3건(전체 43곳, 지적사항 443건)에 비해 많은 수치다.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은 지난해 전국 스쿨존 1만 5799곳 가운데 한 해 2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사망 교통사고가 난 곳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에서 12건의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안전처의 점검 결과, 스쿨존 등 안전표지 미설치(3건), 횡단보도·과속방지턱 미설치(3건), 보행공간 부족(1건) 등이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나주시 금천초교 인근 스쿨존에서는 ▲최고속도(시속 30km)제한표지 미설치 ▲보호구역 해제표지 미설치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32건에 달했고 광주시 서

구 영주초교도 횡단보도 턱낮춤 미흡, 폭이 좁은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등 19건의 문제점 지적됐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92건) 중 93.4%(86건)가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였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해당 스쿨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11~2013년 지정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가운데 여태껏 시설 개선을 마치지 못한 순천신흥초교(사고 2건)와 고흥동초교(사고 3건) 등 2곳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5 해질 19:32
 일출 23:27 일몰 12:00

택일까지 차오르는 더위

오전에 안개 끼는 곳 많았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5/35	보성	맑음	22/33
목포	맑음	25/33	순천	맑음	24/35
여수	맑음	25/31	영광	맑음	24/34
나주	맑음	24/35	진도	맑음	25/32
완도	맑음	24/32	전주	맑음	24/36
구례	맑음	22/36	군산	맑음	24/34
강진	맑음	22/32	남원	맑음	21/34
해남	맑음	23/32	홍산도	맑음	22/27
장성	맑음	23/34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남부	남해	남동~남	0.5~1.0	남동~남	0.5~1.5
남해	남해	북~북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북~북동	1.0~1.5	북동~동	1.0~2.0
남해	남해(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26	11:30	18:59	23:52
여수	00:54	07:04	13:28	19:20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	☀	☀	☀	☀	☁	☀
25/35	25/34	25/33	24/32	24/30	24/28	24/3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40
- 빨래: 90

방위사업청, 광주교도소 생산 4개 품목 구매

방위사업청은 5일 광주교도소에서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된 4개 품목을 올해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이날 광주교도소 교도작업장에 '희망이음 사업'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현판식을 했다.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된 군수품을 조달하고 수형자들에게 사회복귀 능력을 키워 주는 취지였다.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행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일거리 부족으로 적정 작업량 확보가 필요하고, 생산

품목 확대도 수행자의 다양한 기술 습득과 직업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사청과 광주교도소는 중소기업에서 입찰을 꺼리는 품목 중 생산 가능 품목을 우선해 '희망이음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이 사업 명목으로 광주교도소와 계약한 품목은 4종은 제도판, 제도판 받침대, 수입포, 깃대 등 4종이다. 방사청 순현영 기획협력계약팀장은 "협업을 강화해 조달 애로 군수품을 적기에 조달하고 교도작업의 취지를 살려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체 개인정보 유출 집중단속

"입주 예정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전세·매매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집 계약을 한 다음날 이삿짐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았느냐고 캐물으니 부동산에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가 올해 5월 접수한 개인정보침해 민원신고 사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

련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호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자율점검을 하도록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자율점검이 끝난 후 행자부는 이달 28일까지 온라인·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부동산 관련 법인이다.

연합뉴스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앞으로의 금융

광주문화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 (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 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운암지점 528-4150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